

연중 제 4 주일:

2017 년 1 월 29 일 (가해)

#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52 호



주일 미사: 오전 9 시 (한국어, 영어), 오전 10 시 30 분(영어), 오후 12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오후 2-6 시), 화.수요일 (오전 9:30 시-오후 8 시). 목 (오후 2-6 시),

금요일(오전 9:30 시-오후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434 )	봉헌 ( 215 )	성체 ( 174 )	파견 ( 28 )
<p><b>2017 년도 구역 및 구역원 명단</b></p> <p><b>A 구역 :</b> 유 마리아, 이 바실리오, 배 실비아, 배 안젤로, 양 유리안나 오 베드로, 오 루시아, 유 요한, 손 아놀드, 손 쟈마, 최 요안나, 최 마태오</p> <p><b>A 구역:</b> 김 헬레나, 박 니콜라스, 박 마가렛, 김 마론, 김 데오도라,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허 루카, 배 시몬, 김 글라라. 이 올리안나</p> <p><b>B 구역:</b> 이 마틸다, 이 그레이스, 장 글라라, 이 요한, 이 요셉, 이 데레사, 전 체노베파, 김 안드레아, 김 마르타, 데니엘 한, 사비나</p> <p><b>B 구역:</b> 김 유스티나, 홍마르코, 홍아네스,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이 글라라,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정 바오로, 정 릿다, 김 유스티노, 김희정, 고순영.</p>			<p><b>성소를 위한 기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li> <li>●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li> <li>○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li> <li>●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li> <li>○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li> <li>●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li> <li>◎ 아멘.</li> </ul>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29/17	이 마틸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2/5/17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2/12/17	유 요한	이 요한,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2/19/17	박 니콜라스	이 바오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차 봉헌	교무금
1/22/17	\$301	0.00	\$550

\* 미사책 대금: \$350

새 신자 교육 1/8/17 다시 시작함.

그 동안 연말, 년시 와 한국 방문으로, 잠시 쉬었던, 새 신자 교육을, 1/8/17 일 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장소는 성당에서, 주일 미사후에 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박 니콜라스 형제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평협 임원회의: 2/12 (일) 오후 7 시

2 월 한인공동체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는, 둘째 주일인 2 월 12 일(주일) 저녁 7 시에 사제관에서 있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서 말씀 나누기 반 - 성경공부

그 동안 해오던 성서 말씀 나누기 성경공부시간은 오늘 2 월 5 일부터 매주 미사후에 한시간씩,희망자에 한하여, 하기로 하였으며, 시간과 요일은 모임에서 회원들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유스티나, 총구역장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인공동체 성모회

그동안 소홀했던, 한인공동체 성모회를 다시 모집합니다. 성모회 활동은 2 월 5 일부터 미사후에 매주 한 시간씩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회원의 합의에 따라 다른요일 과 시간에 만날수도 있으며, 의문 사항은 이 그레이스 재무부장님께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공동체 요셉회

한인 공동체 요셉회를 모집합니다. 요셉회도 2 월 5 일부터 미사후에 매주 한시간씩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회원의 합의에 따라 다른요일 과 시간에 만날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성체조배: 2/2/17(목) 오후 6 시 30 분

2 월 성체조배는 첫째 목요일인 2 월 2 일(목), '저녁 6 시 미사 후에 있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매일미사 책값 과 세금보고를 위한 현금 영수증

2017 년도 매일미사 책값(\$50/권당) 을 재무부장님께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보고를 위한 현금 영수증 또한 이 그레이스 자매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삭

평화의 기도

이 창용 레오/ 뮤지컬 배우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주저 없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를 위한 기도'라고 말합니다.부끄럽지만 '평화를 위한 기도'를 가장 좋아하게된 동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대학 시절 그룹 안에는 매번 저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었습니다. 내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과 마주할 때면 '나와는 안 맞는 사람이다', '거리를 두고 지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 의견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나와는 먼 사람으로 생각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뮤지컬 프로 무대에 데뷔 작품을 준비하면서부터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진심 어린 충고로 하는 말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연기와 노래, 춤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까지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연습실에 가는 것이 두렵고 그분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서로의 고충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회사원은 그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그 직장상사와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지만, 나는 공연이 끝날 때까지 버티면 그후에는 마주칠 일이없으니, "조금만참고버티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해야만 힘든 상황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일 미사를 드리고 마침 기도로 '평화를 위한 기도'를 바치는 중에 정작 저 자신은 평화를 위해 아무것도하지 않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해받기만을 원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만을 원한 저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저 스스로 제안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괴롭히는 사람도 모두 제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었습니다.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달라는 기도와는 달리, 제 마음속의 미움만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해 달라는 기도와 달리, 제 마음속 미움조차 지우지 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스스로 노력해야만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나아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후 미사를 드리면서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노라'라는 말이 다른 깊이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워질 때면 평화를 위한 기도를 바치며 저자신이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대로 '평화는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주보에서>

성경속 동식물

힘을 상징하는 곰

곰은 사자처럼 힘과 폭력을 나타내는 데 사용했다. 곰은 발의 힘이 무척 강해 큰 발과 발톱을 적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다. 그래서 성경은 곰을 가난한 이들을 압제하는 통치자로 의인화해 표현하기도 했다.(잠언 28,15)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 망할수 밖에 없는 죄를 경책하며 심판을 사나운 짐승들과 새끼 잃은 곰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한다.(호세 17,7-8)

<글 성경속 동식물/ 카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발행>

